

“年 1兆 이익 목표... 글로벌 경제협력은행 도약”

은성수 수출입은행장 ‘비전2030’

IKCF 관련 조직 정비·인력 보강
대북경제협력의 새 토대 쌓을 것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은 3일 “오는 2030년 200조원 수준의 여신잔액을 바탕으로 연간 1조원 가량의 이익을 창출하는 대외거래 전담 정책금융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남북협력기금(IKCF)을 운영해 온 노하우를 살려 대북 경제협력과 개발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은 행장은 이날 서울 을지로 은행연합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전 2030’을 발표했다.

은 행장은 “그동안 추가 부실 방지와 새

신을 위한 지구노력에 맞춰져 있던 은행의 경영목표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질 높은 정책금융 서비스 제공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향후 수출금융·대외경제협력기금(EDCF)·남북협력기금 등 세 분야를 중심으로 최적의 금융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경제협력은행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IKCF와 관련해 조직을 정비하고, 인력도 대폭 보강했다.

은 행장은 “그동안 IKCF 수탁기관으로서 축적해 온 대북 경제협력 경험과 해외 인프라 프로젝트 지원 경험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국제금융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대북경제 협력의 새 토대를 쌓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대북 경제협력과 개발 비용을 IKCF가 모두 감당하기 보다 국제

사회의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며 “북한이 국제기구에 가입하기 전이라도 팔레스타인 사례 등을 감안하면 신탁기금(트러스트펀드) 등을 만들어 초창기 인프라 개발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2020년 말까지 이행할 예정이던 혁신안은 올해 말까지 사실상 완료할 방침이다.

수은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조선 등 주요 산업의 업황 부진이 건전성 저하로 이어지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16년 10월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은 행장은 “금융·경상·경비·예산부문의 삭감을 충실히 실천하는 등 10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지구노력을 철저히 이행했다”며 “조직부문은 2016년 말 1개 본부를 축소하는데 이어 올해 말 1개 본부를 추가

로 축소할 예정이고, 3개 출장소와 1개 지점을 폐쇄해 조직을 더욱 슬림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은은 특정기업·계열요 과다여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신용공여한도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도 하반기 중 완료할 예정이다. 기존 각각 60%, 80%였던 자기 자본대비 동일인·동일차주 여신한도는 40%, 50%로 줄어든다.

앞서 리스크관리위원회의 독립성과 위상을 강화하고, 여신부서-심사평가단-여신감리실로 이어지는 ‘신용평가 3심제’를 도입해 부실여신 재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다.

이와 함께 상임이사는 한 명 감축하고, 비상임이사 한 명을 늘려 내부 인사만으론 이사회 의결을 할 수 없도록 구조화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이 3일 서울 을지로 은행연합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장기 발전방향인 ‘비전2030’을 설명하고 있다.

KEB하나은행 ‘손흥민’ 카카오 이모티콘 출시

KEB하나은행은 한국축구 국가대표팀의 손흥민 선수를 모델로 만든 카카오 이모티콘 16종을 3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손흥민 이모티콘’은 러시아 월드컵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투혼으로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한 한국축구 국가대표팀의 선전을 응원하고 그 감동을 이어가기 위한 취지로 출시하게 됐다.

KEB하나은행의 광고모델이기도 한 손흥민 선수를 활용한 카카오 이모티콘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다양한 감정과 상황 표현들을 손흥민 선수의 다양한 표정으로 재치있고 친근하게 표현한 움직이는 스티커 형태로 제작됐다.

‘손흥민 이모티콘’은 3일부터 오는 13일까지 KEB하나은행의 ‘오! 필승코리아 적금 2018’을 신규로 가입하면 선착순 3천명을 대상으로 무료로 제공된다. 또한,



손흥민 이모티콘

금융권 대표 멤버십으로 자리 잡은 ‘하나 멤버스’와 KEB하나은행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이벤트를 통해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한국축구 발전과 프로축구 K리그의 저변 확대를 위해 지난 4월 출시한 ‘오! 필승코리아 적금 2018’은 월 1만원 이상 3백만원까지 불입 가능하며 최대 연 2.4%의 금리를 제공한다. ‘손흥민 이모티콘’ 이벤트와는 별도로 오는 31일까지 신규로 가입하면 K리그 일반석 입장권 50%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김문호 기자 kmh@

두달 연속 금리상승... 대출연체율 ‘최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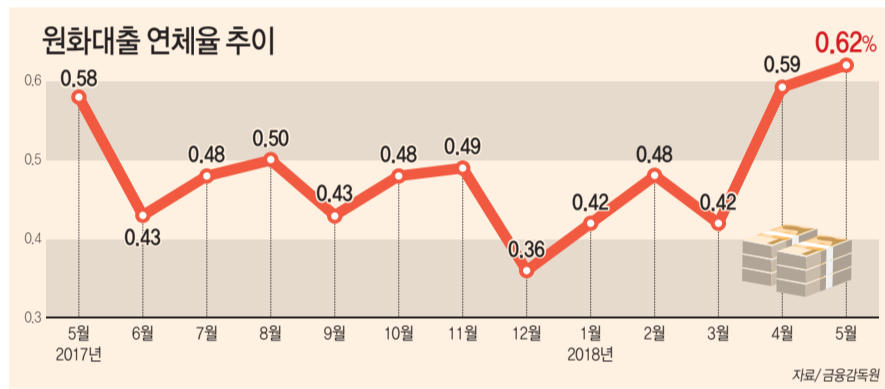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전월 말 대비 0.03%p 상승

금리상승에 대출연체율이 두 달 연속 오르면서 1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62%로 전월말 대비 0.03%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0.04%포인트 높다. 신규연체 발생액이 1조4000억원으로 연체채권 정리규모 8000억원을 웃돌았다.

연체율은 4월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지난 2016년 11월 0.64%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91%로 전월말 대비 0.05%포인트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1.81%, 중소기업대출 0.69%로 각각 전월 말 대비 0.05%포인트씩 높아졌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월말 대비 0.01%포인트 오른 0.28%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19%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고, 신용대출 등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연체율은 0.50%로 0.

04%포인트 상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계대출의 경우에는 전월 대비 0.01%포인트 상승에 그쳤지만 향후 시장금리 상승 등에 따른 연체 증가에 대비해 신규연체 발생추이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왼쪽부터)김건영 NH저축은행 대표, 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서철수 NH농협리츠운용 대표가 지난 2일 서울 서대문 농협금융 본사에서 경영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H농협금융지주-NH저축은행·NH농협리츠운용

김광수 회장, 자회사 대표와 경영협약

NH농협금융지주는 지난 2일 김광수 회장이 서울 서대문 본사에서 지난달 선임된 NH저축은행 김건영 대표이사와의 이번달 업무 개시하는 NH농협리츠운용 서철수 대표이사와의 경영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경영협약식에서 김 대표에게 “취임 초기 조직 안정화를 통해 사업추진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라며, 경영체질 개선 등 중장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서 대표에게는 “조기 사업정착을 통

해 농협금융의 새로운 수익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회장은 “안정적 수익을 낼 수 있는 튼튼한 기반 마련”을 위해 전자회사에 경영체질 개선을 주문하고 있다.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리스크관리 강화를 통한 우량여신 확보, 비대면 거래 활성화를 통한 젊은 고객층 유치, 내부 인재 양성을 통한 전문성 강화 등을 주문했다.

김 회장은 “NH농협리츠운용은 범농협 부동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계열 시간 시너지를 창출하는 등 앞으로 큰 성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카뱅 보증금대출 한도 다방앱서도 조회 가능

카카오뱅크는 부동산 플랫폼 ‘다방’과 손잡고 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 예상 한도를 다방앱에서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서비스 이용 가능 기간은 이달 말까지다.

다방 앱 사용자들은 전월세 매물을 검색하면서 주거 희망 지역, 보증금, 간략한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면 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 예상 한도를 알아볼 수 있다. 실제 전월세보증금대출 한도와 금리는 개인신용정보 확인이 필요해 카카오뱅크 앱을 이용해야 한다.

이형주 카카오뱅크 상품파트장은 “다방 앱을 통해서도 카카오뱅크의 간편한 전월세보증금 대출 사전한도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전월세보증금 대출이 필요한 고객들은 대출처와 상품 선택의 폭을 더 넓게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뱅크와 다방은 이번 대출 한도 조회 서비스를 시작으로 상시 서비스 전환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방 앱을 통해 전월세보증금 대출 조회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 중 매일 100명을 추첨해 카카오 이모티콘을 무료로 증정한다. /안상미 기자

KB금융그룹 은행·증권 복합점포 ‘57호’ 오픈

KB금융그룹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테캐이타워에 은행·증권 복합점포인 ‘KB 골드앤와이즈(GOLD&WISE) 여의도 종합금융센터’를 신규 오픈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KB금융은 은행·증권 원스톱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점포를 총 57개로 확대했다.

이번 복합점포 오픈으로 KB금융은 올해 7개의 복합점포를 추가했으며, 하반기에도 권역별, 지방 대도시 중심의 복합점포 확대를 통해 고객들에게 보다 다양한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복합점포에서는 고객의 자산을 통합적으로 분석해 고객의 투자성향과 필요에 맞는 최적의 종합자산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고객은 은행·증권 점포를 따로 방문할 필요 없이 복합점포에 마련되어 있는 공동상담실에서 은행과 증권 PB의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은행·증권의 우수PB가 하나의 팀이 되어 다양한 은행·증권의 맞춤형 상품을 추천하고, 부동산 투자자문, 세무 컨설팅, 해외주식 세미나 등 고객의 필요에 맞는 자문컨설팅도 제공하게 된다.



지난 2일 진행된 KB국민은행-KB증권 복합점포 개점행사서 박정림 KB금융그룹 WM총괄 부사장(오른쪽 네번째)과 김청경 KB국민은행 영등포지역영업그룹 대표(오른쪽 두번째), 이형일 KB증권 WM총괄본부장(왼쪽 세번째) 및 임직원들이 축하케이크를 자르고 있다.